

# 알뜰한 소비 '목포 원도심 사회적경제 장터'로 모여라

13일~10월까지 매월 1회 '공감마켓'...협동조합 상품 부스 운영  
할인 행사·아카이브 전시·문화 공연·프리마켓·기념품 추첨 등

목포지역협동조합회의가 오는 13일 원도심 로데오광장 및 차 안다리는 거리에서 '사회적경제 장터 공감마켓'을 개최한다. '사회적경제 장터 공감마켓'은 지역의 문제를 사회적경제와 함께 해결하는 가치 중심의 소비문화를 확산하고, 소상공인과 정기적인 장터운영을 통해 사회적 경제기업의 상품판매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린다. 목포에서는 5월부터 오는 10월까지 목포원도심, 평화광장 등 문화관광 거점 공간에서 매월 1회, 총 다섯 번의 장터를 열 계획이다. 공감마켓에서는 목포지역 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상품과 서비스 홍보를 위해 상품 홍보부스 운영, 할

인행사, 아카이브 전시, 목포지역 사회적경제 협약식, 예술공방과 독립서점이 함께 참여하는 예술제협과 프리마켓, 문화공연, 기념품 추첨 등 다양한 행사로 운영된다. 특히 '목포를 짊어, 원도심을 활기차게'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첫 번째 공감마켓은 가족의 달인 5월을 맞아 청소년과 어린이 등 가족단위의 참가자들이 즐길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진행된다. 마술여행, 마술배우기, 버블 아트, 인생네컷 셀프카메라, 유달곰 퍼레이드, 타로체험 등 다양한 체험과 포토존을 제공해 참가자들의 흥미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또 중앙무대에서는 케이팝 댄스공연과 퓨전국악 앙상블, 버스킹 등 푸짐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이날 행사에 참여하는 관람객들은 협동조합이 제작한 생산품을 만인계통 체험행사와 함께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목포협동조합회의에는 사회적협동조합 함께평화, 목포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꿈바다 협동조합, 만인계 마을기업 등 11개 단체가 참가하고 있다. 김영재 목포지역협동조합회의 대표는 "더불어 사는 건강한 공동체를 지향하는 협동조합의 의미가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면서 "지속적인 장터 운영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치중심의 소비문화를 촉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오는 10월까지 매달 열리는 목포 '사회적경제 장터 공감마켓'에서는 마술 공연과 할인 행사 등이 다채롭게 진행된다. 지난해 7월 열린 목포지역협동조합 한마당 축제 모습.

## 영암군,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선도 사업 추진

다음달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참여

영암군이 에너지전환 선도 혁신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영암군은 '에너지 자립 시범마을 조성' 등 세계적인 위협으로 다가온 기후위기 대응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 영암군은 민선 8기 탄소중립 실천과 에너지 대전환시대 선도를 목표로 에너지 혁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 자립마을은 영암군 혁신사업의 하나. 석유·석탄 같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태양광 등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며 에너지 자립을

모색하는 마을이다. 영암군은 에너지 자립 시범마을을 조성해 다음달 한국에너지공단 '2024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한다. 공모에 선정되면 공동주택 50가구, 마을별 일반주택 20가구가 에너지 자립률 50% 이상이 되도록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지원사업은 지자체와 민간기업이 합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영암군은 지난 달 컨소시엄 평가위원회를 열고, (주)세진에너지이링, (주)천운건설, (주)세광플러스, (주)헤리트, (주)인우크로스를 참여기업으로 최종 선정했다. 앞으로 사업 수요조사, 현장 확인으로 최종 사업규모를 확정하고, 공모사업 신청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꼼꼼히 준비해서 공모에 반드시 성공하겠다"며 "영암형 에너지 자립마을을 곳곳에 보급해 에너지 혁신사업의 첫 단추를 잘 꿰고 군민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수익까지 받을 수 있는 모델까지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 다양 그윽한 초의선사 탄생지로 오감만족 나들이



조선 차 문화 부흥을 이끈 초의선사 탄생 237주년을 기념하는 '20회 초의선사 탄생문화제'가 오는 20일 무안군 삼향읍 왕산리 초의선사 탄생지에서 열린다. <무안군 제공>

무안서 20일 초의선사 탄생문화제...전시·강연·체험 등

초의선사 탄생 237주년을 기념하는 제20회 초의선사 탄생문화제가 오는 20일 무안에서 열린다. 조선시대 차 문화 부흥을 이끈 초의선사의 탄생을 기념하는 공식 행사인 '헌다례'를 시작으로 공연, 전시, 강연, 체험 등 관광객들의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초의선사탄생지의 고풍스러운 자연경관과 연계

해 차를 음미하며 즐길 수 있도록 초의 차 소품과 한복 입고 초의선사 나들이 등 이색적인 체험행사도 즐길 수 있다. 전남예술고 학생들의 전통무용 공연과 무안군립국악원의 국악공연, 어린이와 가족단위 관광객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도자기 빚기 체험, 염색 체험, 풍선·비눗방울·마술 공연도 펼쳐진다. 초의선사의 차 문화를 바로알기 위한 '초의 제

다 특강'은 물론 오승우미술관과 연계한 소윤경, 정승원 작가의 현대 미술작품 '이미지 복제의 힘' 전시로 수준 높은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한다. 청년 판매자 20팀이 열정을 가지고 운영하는 프리마켓 '청년 플리마켓'은 200여년을 넘나드는 초의선사와 청년들의 교류의 장이 될 것이다. 조영희 무안군 관광과장은 "이번 문화제는 어린이, 학생, 청년, 다도인, 종교계 등 다양한 계층의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 해남군, 김·고구마 활용 상품 개발

'지역중기 혁신 공모사업' 선정...소득·일자리 창출

해남군이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 주관한 '2023년도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중소기업 혁신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지역중소기업 혁신 공모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역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연계해 지역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과제를 기획하는 공모사업이다.

해남군은 5억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 지역중소기업에 김과 고구마를 활용한 대박상품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제품 표준화 지원, 국내·외 식품품질인증 취득, 유통 상용화를 위한 마케팅 및 채널 입점 등 개발에서부터 유통·판매까지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매출을 증대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 활력을

제고하게 된다. 또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시 우대점수를 부여받고, 2024년 사·군·구연산업 육성사업 공모사업 연계 선정과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우대로 최대 10억원의 국비 확보 및 추가 컨설팅을 지원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사업과 정책자금도 추가로 지원받을 예정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 추진을 통해 살기 좋은 해남을 만들어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도서지역 해상교통권 보장하라"



전국 도서지역기초의원 협의회 법률 제정 촉구안 국회 전달키로

영광 등 전남 6개 시·군 의회가 참여한 전국 도서지역기초의원 협의회(이하 협의회)가 '도서지역 해상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법률 제정 촉구안'을 국회와 정부에 전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협의회는 최근 정기회의(사진)를 열고 도서지역 해상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지난 2009년 결성한 협의회에는 영광군과 신안군, 완도군, 진도군, 고흥군, 여수시, 강화군, 옹진군, 보령시, 부안군, 남해군, 사천시, 통영시, 거제시, 울릉군 등 15개 기초의회가 참여하고 있다. 여객선은 섬 주민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데도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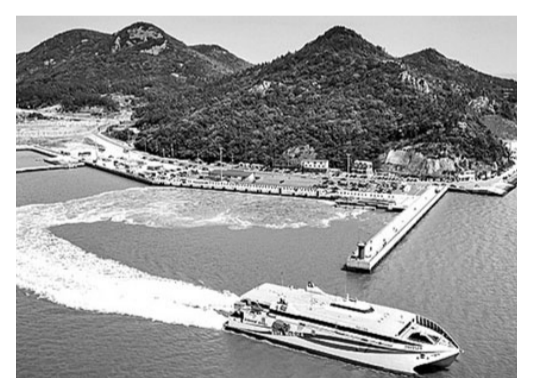
협의회 측 의견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도서지역 해상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회에서 심사 보류되고 있다. 이 법안은 섬 지역 해상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선박 이용객에 대한 운임 지원, 여객선 건조, 대합실과 접안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협의회는 "섬 해상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며 "섬 주민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도서지역과 육지를 이동하고 지역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법률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섬발전진흥원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연안여객선의 km당 운임 단가는 306원으로, 버스·전철(125원)보다 2.4배, 고속철도 KTX(164원)보다 1.8배 비싸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

## '진도~제주' 산타모니카호 타면 이벤트

탑승객 20만명 돌파 기념...현열자 할인·승선 인증 경품 등

진도-제주 취항 1주년을 맞아 쾌속카페리 산타모니카호의 운영사인 씨월드고속해운(주)가 탑승객 20만명 돌파를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한다. 진도군에 따르면 지난해 5월 7일 운항을 시작한 산타모니카호는 하루 2회 진도-제주 구간을 왕복 운행하며 1년 동안 20만 여명의 관광객과 3만 8000여대의 차량을 수송했다. 진도군 관광 활성화와 해상 교통권 확대는 물론 매일 1회 추라도 경유편을 운항해 교통환경이 열악한 섬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씨월드고속은 취항 1주년을 기념해 현열자 운임 할인, 승선 인증 경품 이벤트, 제주바다 플로깅, 단체고객 현수막 제작, 즉석 참여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한다. 산타모니카호는 승객 606명과 차량 86대 선적이 가능한 3500t 규모의 초쾌속 카페리선박으로, 1시간 30분 만에 진도와 제주를 연결하고 있다.



진도~제주 운항 산타모니카호.

김희수 진도군수는 "취항 1주년을 맞아 산타모니카호는 제주와 전남 서남부권을 연결하는 해상 관광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진도군 관광 활성화와 해상 교통권 확대에 노력해 온 씨월드 고속해운 관계자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 목포시 '친환경 자율주행 교통' 도입

강소형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선정

목포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3 강소형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선정돼 국비 120억원을 확보했다.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급속한 도시발전이 따른 도시문제를 시민, 기업, 지자체가 힘을 모아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 서비스를 찾아내고 만드는 사업이다. 기후위기·지역소멸 등의 변화에 대응력을 기르기 위한 특화 솔루션이 집약된 선도 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는 전남도환경산업진흥원 등 7개 기관과 컨소

시업을 구성해 'SEA YOU AGAIN'이라는 부제로 사업을 기획했다. 친환경 스마트 해양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친환경 자율주행 교통과 스마트 재활용 해법을 도입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신산업 도입으로 강소 스마트시티를 조성할 계획이다. 주요 교통 구간(목포역-영산강 하구)에는 친환경 자율주행 전기 버스 노선을 추가 도입한다. 지난해 지역거점 스마트도시에 선정된 해남군과 목포를 순환하는 광역노선도 만들어 운영한다.

/\*목포·문병선 기자 서부취재부장 moon@